

## 일상과 비일상을 가르는 '경계의 시학'

《5분의 추억》 펴낸 윤병무씨

“출퇴근의 사이클에 갇힌 채 살아가는 일상인의 내면을 묘사해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괴리, 갈증, 일탈의 유혹, 슬픔 따위를 내 식으로 치환시키다보니 일상의 세묵에 대한 관찰로 나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 치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세계의 새로운 인식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시인 윤병무씨(35)의 첫시집 《5분의 추억》(문학과지성사)의 작품들은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선 상에서 씌어진 것들이다. 시집 뒷면의 <자서>에서 윤씨는 이것을 “죽은 세포와 산 세포의 경계선”이라고 말한다. 일상은 죽은 삶이고 비일상은 죽어있는 삶이 살기 위해 꿈꾸는 공간이다. 이번 시집에서 윤씨는 이 경계선에서 한발 벗어나는 법 없이 보이는 사물들과 현상의 비밀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출퇴근의 사이클에 갇힌 채 살아가는 일상인의 내면을 묘사해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괴리, 갈증, 일탈의 유혹, 슬픔 따위를 내 식으로 치환시키다보니 주변 현상에 대한 관찰로 나가게 됐습니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서 항상 ‘진동’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일상의 흐름에 따라 시 배열해

시집을 구성할 때도 ‘출근→회사→퇴근→밤’으로 이어지는 일상의 순서대로 시들을 배열했다. 1·2부로 나누려다 그만둔 것도 그 흐름을 고려한 결과다. 시집 제목은 처음엔 ‘Holiday’ 였지만 마지막 편집과정에서 ‘5분의 추억’으로 바꿨다. 웬지 독자를 속이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대로 그의 시들은 ‘지나간 시간’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하지만 시인에게 그 시간은 결코 따뜻하고 그리운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저편에 묻혀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화자의 심기를 어지럽힌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가 // 늦은 아침 호주머니에서 나온 / 병뚜껑 하나 // 구부린 엄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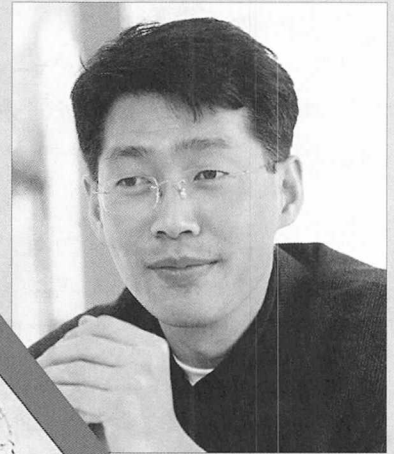
집게손가락 사이에서 반으로 접힌 /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 오비라거 병뚜껑 하나 // 어두운 호주머니 속에 갇혀 있다가 / 내 손가락에 잡혀 올라와선 / 죽은 조개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서시〉).

이 시의 부제는 ‘출근길’이다. 모든 것이 생동하는 아침에 화자는 지난밤의 기억과 마주친다. 구부러진 병뚜껑에서 뭔가 사연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은 조개처럼 딱 닫혀 있다. “순환선 지하철에 올라 손잡이를 잡으면 / 누군가의 체온이 식어가고 있다”(〈순환선 지하철에서〉)에서 ‘누군가’는 이미 떠나고 없는 사람이다. “어느 실직자의 깊고 푸른 밤이 가면 / 토사물 위로 대낮의 아지랑이가 춤춘다”(〈출장중1〉)는 표현에서도 험하게 옆질러진 간밤의 시간이 보인다. 이렇듯 화자는 가는 곳마다 실체가 떠나고 흔적만 남은 빈자리를 만나게 된다. 마치 ‘융합’된 채 배달되는 우편물처럼 말이다. 여기서 그는 한마디 내뱉어본다. “나는, 살 만한가”(〈한밤의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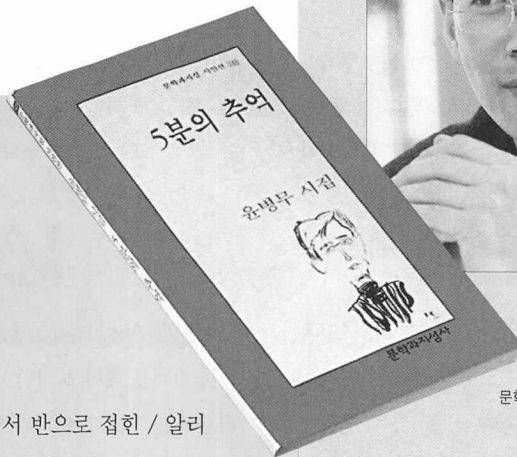
### 객관화시켜 바라본 삶의 풍경

하지만 그는 살 만한다. “세상을 향해 앵글을 잡을 줄” 알고 “슬픔이 어디까지 다가와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시인은 대부분의 시에서 이 ‘슬픔’을 객관화시켜 바라본다. 때론 건조하고 냉철하기까지 한 세밀한 시선 앞에서 이제 그를 흥미하게 했던 시간은 오히려 그의 시선에 포착되고 ‘발견’된다.

“검은 유리창을 둘러놓아... / 궁금했던 카페



윤병무씨



문학과지성사/B6변형/118면/5000원

안으로 들어와 보니 / 안에서만 바깥이 내다 보이는 / 창을 붙여놓았다... /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 / 나는 그이를 보며 웃어 보인다 / 그이는 웃지 않는다 / 나는 손을 흔들어 보인다 / 그이는 창가를 스쳐 지나간다”(〈낮술〉).

그는 창밖의 지인과 소통할 수 없다. 두터운 간유리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카페로 들어간 것은 그가 바라던 것을 실현한 행위로 읽힌다. 카페가 내면적 인간을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성공적인 도구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다. 그런 앵글이 있기에 “옛 애인의 손을 주머니 속에서 / 살짝 잡아보는 일이지...마침표같은 돌맹이를 주워 / 하나씩 던진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투석〉)에서처럼 여유 있는 표현을 건져올린다.

《5분의 추억》은 윤씨의 첫시집이다. 시집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둘러본 주위의 반응은 좋았다. 사물이 놓인 자리를 디테일하게 묘사할 줄 안다는 평을 받았다.

“앞으로는 시형식을 줄글 형태로 바꿔볼까 합니다. 형식적 치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세계의 새로운 인식 가능성을 찾고 싶어요. 일상에서 일탈하는 것도 오래 유지하다보면 또 다른 일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첫눈> <풍요일의 오후> <예술가에서> 같은 시들은 그런 변화를 시도해본 작품들이다.

— 강성민 기자